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1996. 2.

전 현 준 (북한연구실장)  
김 성 철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최 수 영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 目 次 -

I. 問題 提起 .....	1
II. 金正日 生日行事 概觀 .....	2
III. 權力承繼의 象徵的 正當化 .....	4
1. 붉은기 철학과 3대진지론 .....	4
2. 김정일 권위의 이론화 .....	6
3. 후계자론 .....	7
IV. 經濟難 緩和 摸索 .....	9
1. 구조적 경제난 .....	9
2. 대외경제관계의 개선 .....	10
V. 軍部の 支持基盤 強化 .....	12
1. 군부지지 확보 .....	12
2. 군부의 생일행사 주도 .....	13
VI. 對外的 與件 造成 .....	15
1. 대미관계 개선 .....	15
2. 대미접근의 성과 .....	17
VII. 南韓과의 敵對的 共存關係 .....	19
VIII. 承繼時期 展望 .....	22
<부록 1> 김정일 생일 54돌 경축행사(대내) .....	25
<부록 2> 김정일 생일 54돌 「중앙보고대회」 주석단 명단 ...	28

## I. 問題 提起

- 북한은 최근 잠비아 주재 외교관 현성일 부부의 망명, 국가 안전보위부원의 러시아 망명시도, 성혜림 일가의 西方行 등으로 야기된 침체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54회 생일(2.16) 축하를 위한 각종 행사를 성대하게 치름으로써 김정일의 공식승계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였음.
- 생일행사는 대내 결속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서약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의 이상화 선전에 집중되었는 바, 주목할 것은 김정일 생일을 즈음한 김정일 승계정치가 신년 「공동사설」(1.1)에서 제기된 ‘3대진지’(정치·사상, 경제, 군사) 구축의 맥락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임.
- 「공동사설」에서 ‘붉은기 철학’과 함께 새롭게 제시된 ‘3대진지론’은 김정일 생일 54돌 경축 중앙보고대회(2.15)에서도 향후 정책과제의 기본틀로 활용되었음.
- 본 보고서는 2·16 생일행사를 전후해 북한의 정치·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김정일 승계정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공식승계 시기를 전망하고자 함.

## II. 金正日 生日行事 概觀

- 1995.2.7 김정일 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규정<sup>1)</sup>한 이래 두번째 맞이하는 금년 생일행사는 1.16~2.16 기간을 ‘경축 월간’으로 설정한 가운데 ‘정일봉 답사행군’(1.13~1.21)으로 부터 시작되었음.
- 대내행사는 수적 측면에서 작년 26개에 비해 올해는 25개 (<부록 1> 참조)로 대동소이한 반면 규모면에서는 다소 확대되어 개최되었고, 대외행사는 親北國家에서 ‘2·16경축준비 위원회’를 결성 추진하는 등 수적으로나 규모면에서 확대되었음.
  - 북한은 대내행사 일환으로 김일성 생일행사 때만 실시해 왔던 ‘전국노동자 예술소조경연대회’를 이례적으로 개최하였음.
- 식량난과 수해 등으로 침체된 경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

1) 북한은 1974년 처음으로 김정일 생일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1975년에 휴무일로 지정하였음. 김일성 사망후 1995년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2.7)을 통해 “김정일이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 쌓아올린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 만대에 길이 전하고 빛내이며 영원히 기념키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김정일 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제정하였음.

김정일 생일행사를 위해 3억 달러(한화 2천4백억원)라는 막대한 비용을 소비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음.

- 자금원은 60여 개의 해외공관, 1백30여 개의 무역대표부 및 「조총련」, 상공인 대표 등으로부터 각출한 '생일충성 자금'임.
- 사용처는 親北國家의 2.16경축준비위원회 결성 및 경축행사, 국내 행사비용, 생일특식선물비 등임.
- 위의 비용은 1톤 당 3백40달러인 태국산 쌀 88만톤(북한 전주민의 2개월분의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액수임.

○ 한편, 軍部의 위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민군이 백두산 밀영에서 육·해·공군 장병들의 결의모임과 인민무력부 경축야회 등을 대규모로 진행함으로써 김정일 생일행사를 주도하는 분위기를 연출하였음.

- 육·해·공군 장병들의 결의모임은 올해 처음 추가된 생일 경축행사임.

### Ⅲ. 權力承繼의 象徵的 正當化

#### 1. 붉은기 철학과 3대진지론

- 북한은 승계정치의 일환으로 새로운 이념적 正當化를 강구하고 있는 바, 이는 ‘붉은기 철학’(또는 ‘붉은기 정신’)의 부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붉은기는 북한의 국기로서 ‘투쟁,’ ‘전투,’ ‘혁명’ 등을 의미하는 바,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붉은기 철학’은 “주체의 혁명철학, 일심단결의 철학, 신념의 철학”이라고 함.<sup>2)</sup>
- 따라서 ‘붉은기 철학’은 주체사상의 김정일식 변용이론으로서 북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나아가 ‘조선혁명’ 즉 통일을 완성하자는 논리임.

---

2) 「로동신문」, 1996.1.9; 북한이 ‘붉은기 철학’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995.8.28 「로동신문」 정론 “붉은기를 높이들자”; 1996.1.1 신년 「공동사설」 “붉은기를 높이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1996.1.9 「로동신문」은 김정일이 새로운 혁명철학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붉은기 철학을 내놓았다고 밝힘; 1996.2.15 김정일 생일 경축 중앙보고대회시 최태복 당비서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들고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하자”라는 표현으로 붉은기가 주체적 사회주의의 도구임을 밝힘.

○ 신년 「공동사설」은 ‘붉은기 철학’의 실천과제로서 ‘3대진지론’을 제시하였는 바, 이는 그 내용상 金正日 승계정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정치·사상적 진지는 권력승계의 상징적 정당화와 관련된 사안이고,
- 경제적 진지는 권력승계의 여건으로서의 경제적 업적성취와 관련된 사안이며,
- 군사적 진지는 김정일 정권의 보루인 군부의 역할과 관련된 사안임.

○ 그러나 ‘붉은기 철학’은 주체사상처럼 치밀한 명제들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김일성 사망후 발표한 다섯 편의 논문<sup>3)</sup>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 바, 아직 주체사상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거나 이를 전면 대체하는 이념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할 수 있음.

- ‘3대진지론’은 단지 김정일 승계를 앞두고 주민동원을 위한 구호제정 필요성에 의해 등장한 것으로 보임.

---

3) 김일성 사망후 발표된 다섯 편의 논문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11.1), “제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하여”(1995.5.25),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1995.6.19),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1995.10.2),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1995.12.25) 등임.



## 2. 김정일 권위의 이론화

- 북한은 금년 김정일 생일 전후로 언론매체를 통해 ‘장군님의 한식술’이라는 이름 아래 1986년 김정일이 혁명적 수령관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다소 수정, 김정일의 정치적 위상을 새롭게 정의함.<sup>4)</sup>
  - ‘한식술론’은 ‘사회주의대가정론’의 연장선상에서 발로된 논리로서 김정일 수령화 작업의 일환임.
  
- 한편, 북한은 ‘김일성 = 김정일’이라는 단순논리를 보강하고 김정일의 당에 대한 지배를 재확인하기 위해 노동당을 매개체로 삼는 ‘김일성 = 노동당, 노동당 = 김정일’의 논리를 발전시킴.
  - ‘김일성 = 노동당’의 논리는 김정일의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1995.10.2)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한편,
  - ‘노동당 = 김정일’의 논리는 김정일이 노동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했다는 주장과 함께 김정일을 ‘당 중앙위의 수반’(「공동사설」), ‘당의 최고수위’(「로동신문」, 1996.2.6), ‘위대한 수령’(2.15 인민무력부 「경축야회」)으로 내세움으로써 정당화됨.

---

4) 「로동신문」, 1996.2.5.

- 위의 ‘한식솔론’과 ‘김일성 = 노동당, 노동당 = 김정일’ 등식에서 처럼 黨의 지위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이유는 김정일이 최고사령관 혹은 국방위원장의 권위를 통한 지금까지의 準軍事的 통치방식을 마감하고 당최고수반인 당총비서직 승계에 임하려는 것으로 분석됨.

### 3. 후계자론

- 김정일의 후계자상 부각은 1990년대 들어 김일성 우상화 작업보다 우선하여 전개되어 왔는 바, 북한은 금번 생일에 즈음, 각종 사상교양사업 뿐만 아니라 창작물 보급을 통해 김정일 군지도력과 영도력을 ‘대중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음.
  - 조선작가동맹(위원장 김병훈)을 비롯한 문예단체가 중심이 되어 김정일을 찬양하는 가요, 시 및 소설을 대대적으로 보급시킴.
  - 최고사령관 추대(1991.12.24) 이후 4년간에 발표된 김정일 찬양시(서정시, 서사시, 장시)는 1천4백편에 이르며, 금년 생일행사시 90여 편의 詩가 발표됨.
- 또한 김정일의 영도력에 대한 대중화 노력은 김정일의 후계자 자질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북한은 ‘위대한 수령’인 김일성의 위대성은 김정일에 의해서만 구현된다고 주장함.

- 예컨대, “수령은 수령을 닮은 후계자의 모습으로 영생하며  
수령의 위업은 후계자의 위업으로 완성되어 나간다.”<sup>5)</sup>
  - “김정일은 수령과 사상도 같고 뜻도 같은 오늘의 김일성  
이다”<sup>6)</sup>라는 표현이 대표적인 것임.
- 이같은 방식의 김정일 후계자상 부각은父子間 권력승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격한 능력차이에 따른 김정일 이상화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됨.
- 그러나 후계자를 통한 전임자의 카리스마 轉移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됨.<sup>7)</sup>

---

5) 「로동신문」, 1996.2.6.

6) 김정일 생일 54돌 경축 중앙보고대회의 최태복 보고, 「중앙방송」,  
1996.2.15.

7) 이론적으로, 웨버(Max Weber)는 카리스마란 다른 사람이 소지하지  
않은 독특한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이라고 보고 그렇지  
못한 경우 소멸하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음. H. H. Gerth and C. W.  
Mills, eds.,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6), pp. 245~50. 또한 실제로 어떤 기  
존의 사회주의체제에서도 북한처럼 후계자에게 카리스마를 전이하려  
고 시도한 적은 없었음.

## IV. 經濟難 緩和 摸索

### 1. 구조적 경제난

- 1990년 이후 6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특히 식량 및 생필품의 부족은 북한주민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음.
-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대내적으로 경공업 및 농업 건설을 강조하는 한편, 인센티브체계 개선(개인식당 개설 및 텃밭개간 장려 등), 지방행정단위 경제자율권 확대 등 제한적인 자율화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것은 경제체제의 구조적 개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과는 매우 미미함.
- 따라서 북한은 김정일 생일을 기해 집중적으로 경제실적을 발표해온 예년과 달리 올해는 2월중 단 1건도 발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완충기(1994~1996) 과제로 내세운 3대제일주의(농업·경공업·무역)에 대한 언급도 자제하고 있음.
  - 북한은 1994년 2월에 3건, 1995년 2월에 4건의 경제실적을 발표한 바 있음.

## 2. 대외경제관계의 개선

- 북한은 경제난 완화를 위해 대외경제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특히 식량문제<sup>8)</sup>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국제기구, 일본 및 한국에 식량지원을 요청하여 일부 성과를 거두었음.
-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는 한편,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지원확대를 도모하고 식량배분에 따른 외부간섭 배제를 위해 북한내 군부 對 외교부의 異見表出說을 흘리고 있음.
  - 외교부 대변인은 “수해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원조와 관련, 인민군은 원조가 개혁과 개방에 역이용당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1.20)한 바 있고,
  - 외교부 부부장 최수현 및 유엔대표부의 북한 관리는 국가간 쌍무관계에 의한 지원은 수용하되 군부의 반대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sup>9)</sup>은 선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

---

8) 1995년 북한의 곡물부족량은 259만톤(1995년 필요곡물수요량 672만톤, 1994년 국내생산량 413만톤)이며, 1995년 북한의 곡물도입량(원조 포함)은 88만톤으로 1994년도 도입량 36만톤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음.

9) 유엔식량기구(WFP)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한 인도적 원조 총액은 2,800여만 달러(유엔산하기구 310만 달러, 미·일 등 26개국 1,650만 달러, 비정부기구 870만 달러, EC와 같은 국제정부기구 38만 달러, 국제기관 5만 달러)임.

를 표명한 바 있음.<sup>10)</sup>

○ 한편,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유치, 대외 경제교류 확대, 남한 기업과의 經協擴大 등을 통한 경제난 극복에 주력하고 있음.

- 그러나 나진·선봉지역 개발과 관련, 외국기업과 체결된 약 15억 달러의 투자계약 중 실제 투자금액은 4,000만 달러에 불과함(1995.9 기준).

○ 요컨대, 북한은 대외경제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난을 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식승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경제구조의 문제점, 경제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그 성과가 매우 미약한 실정임. 그러나 미·북연락사무소의 개설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추가완화<sup>11)</sup>될 경우, 이를 김정일 승계에 필요한 경제·외교적 치적으로 선전할 것임.

---

10) 「東亞日報」, 1996.2.9; 「한국일보」, 1996.2.11.

11) 의회의 승인이나 관련 법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치로 1,400만 달러의 북한동결자산의 해제, 북한외교관의 미국내 활동범위 확대, 미기업의 직접투자 허용 등이 있음. 「중앙일보」, 1996.1.8.

## V. 軍部の 支持基盤 強化

### 1. 軍부지지 확보

- 김정일의 군 장악 및 군부로부터의 지지획득은 1991년 최고사령관 추대(12.24)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1995년 당 창건 50주년을 즈음해 단행된 인사조치로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올해 들어 김정일이 군 이외의 행사에도 참석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함.
  - 1995년 김정일의 활동은 군부대 방문(1.1)으로 시작하여, 공식활동의 3/4 이상이 군관련 행사 참여였음.
  - 반면 올해 초 활동에는 제1회 세계군인체육대회(1995년 9월 개최) 참가 인민군선수 접견(1.20), 군협주단 공훈합창단 공연 관람(2.18), 군장병과의 평양시 청년학생 집단체조 관람(2.19), 제963부대 여성중대 방문(2.20), 조총련 대표단과의 인민군 협주단 공연관람(1.22) 외에도 김일성사회의청년동맹 대표자회의 폐막식 참여(1.19) 등 비군사 관련 행사에 참석하였음.
  
- 한편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군부장악 과정은 군부 사기 진작을 위한 위상강화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 바, 각종 행

사에서 차수급들의 서열이 정치국 후보위원과 당비서 사이에 위치지워짐으로써 군지위가 보다 향상되었음을 나타냄 (<부록 2> 참조).

- 이에 대해 최광, 조명록, 김영춘, 김광진 등 군핵심인사들은 2.15 야간에 개최된 「김정일탄생 54돌기념 인민무력부 경축야회」를 통해 ‘김정일 위해 총폭탄이 될 것’임을 맹세함으로써<sup>12)</sup> 군의 김정일지지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

## 2. 군부의 생일행사 주도

- 군부의 위상이 향상되고 체제수호의 역할이 증대된 만큼, 군부는 김정일への 충성경쟁에 앞장서서 생일행사의 축제 분위기를 주도하였음.
- 올해 김정일 생일행사에서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군부의 행사참여도가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 崔光을 비롯해 군총정치국장 趙明祿, 군총참모장 金英春,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金光鎭 등이 참석한 ‘인민무력부 쉼기모임’(1.31)은 북한군을 김정일의 친위대 혹은 결사대

---

12) 「중앙방송」, 1996.2.15.



로 준비시킬 것을 강조하면서 생일행사의 분위기를 사실상 선도해 나갔음.

- 또한 생일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백두산 밀영에서의 「육·해·공군 장병들의 결의모임」(2.14)과 「인민무력부 경축야회」(2.15)에서는 군부 요직자 외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음.<sup>13)</sup>
  - 특히 밀영결의모임에는 최광을 제외하고 조명록, 김영춘, 김광진, 이하일, 김하규, 이종산, 박재경 등 군 지휘관들이 대거 백두산으로 이동, 생일행사를 치루었음.
- 그러나 군부의 행동반경 확대는 김일성 사후 체제수호의 최후보루는 軍이라는 김정일의 정책판단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김정일의 군부 지휘권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13) 「중앙방송」, 1996.2.15.

## VI. 對外的 與件 造成

### 1. 대미관계 개선

-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경제 파탄, 김일성 사망 등 대내외 환경의 급변속에서 對美關係 개선을 체제유지를 위한 대외 관계의 기본고리로 간주,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해 왔음.
  - 북한은 대미관계가 개선되면 對日 및 대서방 관계 개선이 수반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북한은 특히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을 미·북기본합의서 채택(1994.10.21) 등을 통해 대미관계 개선의 기회로 반전시키고, 아울러 김정일 공식승계를 위한 업적성취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음.
  
- 동시에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 과정에서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신년 「공동사설」(1.1)과 정당·단체연합회의(1.31)의 김용순 보고에서 미·북간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수립을 선결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북한은 기존의 대외 및 대남관련 구호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에서 ‘자주’를 뺀 ‘평화와 민족대단결’만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는 그동안 자주성 훼손의 주체로 간주된 미국의 존재를 일단 현실로 받아들이고 미·북평화협정체제 수립을 위한 의사표명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판단됨.

- 이같은 북한의 의도는 미군 유해 송환관련 하와이접촉(1.10~13)에서 연락사무소 개설 및 평화협정체결 문제의 의제포함 요구, 「범민련」 북측본부(의장 백인준) 5차 정기총회(1.25)에서 평화와 민족대단결의 기치 아래 대내외 「범민련」 조직들의 단결 호소,<sup>14)</sup> 정당·단체연합회의(1.31)에서 올해를 ‘평화와 민족대단결의 해’로 설정한 점<sup>15)</sup>과 이와 관련한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위원장 유미영) 대변인 담화(2.7)<sup>16)</sup> 등에서 잘 나타남.

○ 북한은 대미 평화협정체결 주장 공세를 구체화하려는 차원에서 최근 외교부 대변인 담화(2.22)를 통해 현 停戰協定<sup>17)</sup>

14) 「중앙방송」, 1996.1.26.

15) 「중앙방송」, 1996.1.31.

16) 「중앙방송」, 1996.2.8.

17) 북한은 1991년 4월 미·북평화협정체제 수립을 제안하기 위한 조치로서 동년 3월 이래 군사정전위 본회의 참석을 거부함으로써 정전체제를 무력화시켰음. 북한은 또한 1994년 군사정전위를 대체할 조선인민군 관문점 대표부를 설치하고 미·북간 장성급회담을 주장한

을 대신하는 '잠정협정'을 제안하였음.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됨.<sup>18)</sup>

- 무력충돌방지와 정전상태의 유지를 위해 조·미 잠정협정 체결 주장
- 잠정협정의 이행 및 감독을 위한 조·미 공동군사기구의 조직 요구
- 잠정협정 체결과 군사공동기구 조직을 위한 협상 제의

## 2. 대미접근의 성과

- 북한은 1994년 10월 미·북기본합의서를 통해 핵동결의 대가로서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과 함께 미국의 대북 정치·경제적 관계개선 약속을 받아냄.
  - 미국은 제네바합의의 원활한 이행과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 및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등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대북한 연착륙(soft-landing)정책을 취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단기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미국의 대북한 연착륙정책은 김정일 체제의 安定性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근 극심한 식량난과

---

바 있는데, 이는 이번 제안에서의 공동군사기구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18) 「중앙방송」, 1996.2.22.

관련하여<sup>19)</sup> 미국 정부의 2백만 달러 식량지원 결정<sup>20)</sup>과 민  
간단체 식량지원절차 간소화 결정으로 구체화됨.<sup>21)</sup>

- 이에 대해 북한은 「중앙통신」을 통해 이례적으로 미국의  
식량원조 결정을 보도(2.8)하면서 이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한편, 북한의 대미접근 노력은 향후 식량지원으로부터 연락  
사무소 개설과 대북 경제제재 추가완화, 평화협정 체결, 관  
계정상화 등에 이르는 다단계적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경  
주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대미관계 개선의 속도와 폭  
은 승계정치의 대외적 업적성취를 가름할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가 될 것임.

---

19) 미국은 작년 10월 북한의 홍수피해후 긴급재난구조기금 형식으로  
최대 허용범위인 22만 5천 달러의 구호물자를 국제기구를 통해 지  
원한 바 있음.

20) 미국은 이를 농무부가 주관하는 대외재난구호기금(FDA)의 기금을  
통해 세계식량계획에 기탁하는 간접지원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하기  
로 한 것으로 알려짐. 대외재난구호기금에 의하면 재난 등 인도적  
사안에 대하여 행정부가 예산범위 내에서 의회의 동의없이 재난국  
을 지원할 수 있음.

21) 「한겨레신문」, 1996.2.1; 「東亞日報」, 1996.2.15.

## VII.南韓과의 敵對的 共存關係

- 북한은 금년 「공동사설」을 통해 현정권타도를 당면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기존의 통일방안인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연방제창립방안 등을 반복 주장하였음.
  
- 이와 함께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발생한 현성일부부 귀순과 성혜림 일행의 서방행 보도를 계기로 북한은 김일성 조문파동 이래 지속해온 남북대화 불응 입장을 재천명함.
  - 대화불응의 명분은 남한당국의 '김일성에 대한 모욕'으로부터 최근 성혜림 사건과 관련 '최고지도부에 대한 모욕'으로 바뀌었으나, 대화 상대자로서의 부적격성을 조작하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음.
  
- 남한과의 대화불응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 첫째는 평화협정체제 구상에서 남한을 배제하려는 전략으로 북한은 잠정협정과 관련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2.22)에서 남북한간에는 기본합의서가 이미 채택되었으므로 평화협정체제는 미·북간에 성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강조함.

- 들제는 김일성 사망후 생성된 '표류하는 민심'(free floating obedience)을 남한과의 적대관계를 통해 결속시키려는 것임.
  - 한편, 북한은 경제난 해결을 위해 민간차원의 대남협력관계는 지속하였는 바, 1995년도 남북교역량이 3억 달러를 넘었음.
    - 통일원의 「95년도 남북교역」 보고서에 의하면 남북교역 규모는 승인기준 3억 1천만 달러, 통관기준 2억8천7백만 달러였음. 이것은 1994년에 비해 승인 및 통관기준으로 각각 35%, 48% 증가한 것임.
    - 이로 인해 한국은 교역규모면에서 중국, 일본에 이어 북한의 세번째 교역상대국이 됨.
  - 아울러 북한은 경제적 이득과 함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존의 통일전선전술인 정당·사회단체와의 연계를 시도하였는 바, 북한 정당·단체연합회의(1.31)에서 채택된 편지를 남한과 해외의 정당·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에게 발송하였음.<sup>22)</sup>
  - 결국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는 남한을 대미관계 개선으로
- 
- 22) 「중앙방송」은 전당·단체연합회의에서 채택된 편지를 남조선과 해외의 정당·단체들과 각계인사들에게 발송했다고 보도함(2.23).

인해 상실된 主敵으로 상정하는 한편, 경제난 해결을 위한 '동포'로 활용하는 이중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즉 승계를 위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남한위협론을 활용, 김정일의 승계필요성을 제고시키고, 남한과 '적대적 공존 관계'를 형성하여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남북관계에서 당분간 당국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낮음.



## VII. 承繼時期 展望

- 김정일의 공식승계 지연과 관련, 1995년 초 이래 그의 공식 활동으로 보아 健康異狀說은 설득력이 약하고, 權力不安定說은 군부의 위상강화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김정일 권위 훼손 징후가 없다는 점에서 합당한 이유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건강이상설은 김일성 사망후 3개월간 김정일의 공개석상 불참, 중국의 북한전문가 陶炳蔚의 증언(1995.1.18) 등에 근거하였음.
  - 권력불안정설은 주로 서구의 관측으로서 윌리엄 콜비 前 CIA국장의 인터뷰(「중앙일보」, 1995.10.16)가 대표적인.
  
-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승계지연 사유는 ‘3年喪說’로서 공식승계 시기를 김일성 사후 3년이 경과한 금년으로 전망할 수 있는 바, 그 이유는
  - 북한이 가부장제적 유교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
  - 김일성 사망 직후부터 금년 김정일 생일행사시까지 승계를 미루고 있는 김정일을 북한이 ‘충성과 효성의 화신’으로 묘사해 왔던 점

- 북한 권력엘리트들이 3년상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점  
등임.<sup>23)</sup>

○ 한편 문화적 요인 외에 '3년상설'이 설득력을 가지는 현실  
적 이유는 대미관계 개선과 김일성·김정일관련 기념일 등  
경축 분위기를 고조시킬 명분이 합치되는 해가 1996년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올해에는 미·북연락사무소 설치 및 대북 경제제재조치  
추가완화 등으로 대미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북한에서 말하는 김일성 혁명역사의 기원인 「E.C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70주년(10.17)과 최고사령관 추  
대 5주년(12.24)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공식승계의 분위  
기가 절정에 달할 수 있음.

---

23) 1994.12.14일자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신문은 북한 외  
교부장 김영남이 김정일의 승계지연 이유는 3년상 풍습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함; 1995.1.14~21까지 북한을 방문한 릴리 前 駐韓  
미국대사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1995.1.27)에서 김정일의 3년상후  
등장 가능성을 시사하였음; 1996.1.1 「공동사설」에서는 김정일을 ‘당  
중앙위원회의 수반’으로 호칭하는 동시에 김일성 사망 ‘3년째가 되는  
해’라는 표현을 통해 김정일 총비서직 취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함;  
1996.1.23 서든신 駐日 중국대사는 주창준 駐中 북한대사의 발언을  
인용, 1996.7.8 이후 북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함;  
1996.2.9 金應烈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 부위원장은 “김일성의 3  
년상이 끝나는 오는 7월 이후에는 언제든 김정일의 주석직 취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함.

- 결국 대내적으로 김정일에 대한 상징조작, 군부에게 대한 지위승격의 대가로 주어지는 충성심 고조, 대외적으로 대미관계 개선을 통한 외교적 고립 탈피와 경제적 침체로부터의 탈출구 모색 등으로 금년내 김정일 승계에 필요한 여건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구체적인 시기는 김일성의 「E.C」결성 70주년과 김정일의 군최고사령관 추대 5주년이 되는 10~12월 경에 총비서직 및 국가주석직 취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이 경우 김정일의 총비서직 취임은 제7차 당대회 개최를 통해 구성된 제7기 1차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그리고 주석직 승계는 새로운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10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부록 1> 김정일 생일 54돌 경축행사(대내)

행 사 명	일시 및 장소	내 용
정일봉 답사행군	1. 13~21	참가자: 청소년학생 500여 명 답사코스: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백두산밀영
정일봉상·장자 산상 청소년학 생빙상경기대회	1. 15~29 문흥군	참가자: 고등중학교, 인민학교대표선수 500여 명 종목: 속도빙상, 아이스호케이 등
전국노동자예술 소조경연대회	1. 31 중앙 노동자회관	경연종목: 화술, 기악, 성악, 무용작품 등 150여 종목
제6차 2.16예술 상개인경연대회	1. 29~2. 3 평양시내극장	참가자: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 예술선전 대, 예술대학 등 20여 개 단체 300여 명 종목: 민족음악 및 무용종목
백두산상 시급기 관 일꾼체육대회	2. 1	참가자: 70여 개 단체
중앙미술전시회	2. 7 조선 미술박물관	전시물: 조선화, 유화 등 50여 점
백두산상 체육대회	2. 8~16 청춘거리 탁구관(개막)	참가자: 각 시·도 선발 1,500여 명 종목: 권투, 레슬링, 육상, 배구 등 22개 * 수중발레 모범경연 처음 실시
영화상영순간	2. 8~18 각 시·도·군 문화회관	상영영화: 기록·예술·과학영화 20여 편
중앙사진전람회	2. 8 인민문화궁전	전시물: 김정일의 업적 형상사진 110여 점
김정일 위대성 에 대한 인민무 력부 발표회	2. 9 4.25문화회관	참석자: 인민무력부장 최광, 군 총정 치국장 조명록 등 군 고위간 부 및 군관

행 사 명	일시 및 장소	내 용
제5차 백두산 상 국제취겨경 기대회	2. 12~16	참가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10개국
「여맹」, 「직맹」, 「농근맹」 일꾼 들의 김정일 위대성 및 혁 명업적 연구토 론회	2. 12 중앙노동자 회관	토론제목: “김정일동지는 혁명의 수령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 화신” 등
중앙연구토론회	2. 13 인민문화궁전	참석자: 당비서 최태복, 부총리 장철 등을 위 시하여 평양시 당 행정경제기 관, 근로단체 관계자 등 토론제목: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 리 시대의 가장 걸출한 실 력가형의 영도자이시다” 등
「여맹」, 「농근 맹」, 「직총」 일 꾼들의 충성의 맹세모임 각각 진행	2. 13~14 중앙노동자 회관	참가자: 사회단체 관계자 및 동맹원 등
인민무력부 연회	2. 14	참석자: 차수 김광진, 상장 박재경과 駐北대사관 무관들
청년학생들의 김정일 덕성에 대한 연구토론회	2. 14	참석자: 당비서 김중린, 「사청」 제1비 서 최용해 등 관계자 토론주제: “김정일장군님은 온나라 청소 년들의 재능을 활짝 꽃피워주 시는 은혜로운 태양이시다” 등
육·해·공군 장병 들의 결의모임	2. 14 백두밀영	참석자: 조명록, 김영춘, 김광진 등 군 고위간부 및 양강도 당 책임 비서 이길동 등

행 사 명	일시 및 장소	내 용
중앙보고대회	2. 15 4.25문화회관	참석자: 부주석 이종욱·박성철·김병식, 인민무력부장 최광 등 당·정 고위간부 대회보고: 당비서 최대복
인민무력부 경축야회	2. 15 전승광장	참석자: 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 군 총참모장 김영춘, 차수 김광 진을 위시한 관계자와 육·해·공 군 장병 등
로동당중앙위 주최 연회	2. 15 목란관	참석자: 당비서 계웅태·최대복·황장엽· 김중린 등 당·정 간부
조선소년단 연합단체대회	2. 16 평양체육관	참석자: 부주석 박성철, 당비서 최대복, 차수 조명록·백학림 등 당·정· 군 고위간부와 1만5천명의 학생 소년들
집단체조	2. 16 평양체육관	참석자: 부주석 이종욱·박성철·김병식, 인민무력부장 최광 등 체조명: “장군님 따라 붉은기 지키리”
청년전위들의 충성의 맹세모임	2. 16 5.1 경기장	참석자: 부주석 박성철, 당비서 최대복, 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 사회안 전부장 백학림 등 당·정·군 고위간 부들과 15만명의 청년들
2월의 경축무대 “장군님을 위하 여, 조국을 위 하여” 공연	2. 16 동평양대극장	참석자: 부주석 김병식, 인민무력부장 최광, 당비서 계웅태 등 당·정· 군 고위간부
평양시청년학생 들의 야회	2. 16 청년중앙회관	참석자: 시내 각계층 청년학생들

<부록 2> 김정일 생일 54돌 「중앙보고대회」 주석단 명단

1. 이종옥(부주석) 2. 박성철(부주석) 3. 김병식(부주석) 4. 최광  
(인민무력부장) 5. 김영남(부총리 겸 외교부장) 6. 계응태(당비  
서) 7. 전병호(당비서) 8. 김철만(국방위원) 9. 최태복(당비서)
10. 최영림(부총리 겸 금속공업부장) 11.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의장) 12. 이을설(국방위원) 13. 조명록(군총정치국장) 14. 김영  
춘(군총참모장) 15. 김광진(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16. 백학림  
(사회안전부장) 17. 이하일(당군사부장) 18. 김익현(당민방위부  
장) 19. 김기남 20. 김국태 21. 황장엽 22. 김중린 23. 김용순  
(이상 당비서) 24. 김복신(경공업위원장) 25. 김윤혁(부총리)
26. 장철(부총리) 27. 윤기복(중앙인민위 경제정책위원장) 28.  
전문섭(중앙인민위 국가검열위원장) 29. 유미영(천도교청우당  
위원장)

## ● 發刊資料目錄 案內 ●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情勢 展望

###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對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 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십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  
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화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 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分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김정일 體制下의 軍部 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中·北韓關係 變化 研究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을 계기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 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 (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 (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 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 I)

###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を 中心으로  
統一情勢分析 96-01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237-9288, FAX: 231-4304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266-0892

印刷日 1996년 2월 일

發行日 1996년 2월 일

---